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7 No. 3 2017. 9. 24

편집: 홍보 위원회

보스톤한인교회 (미국장로교)

2017년도 제작 안수 및 임직 예배

2017년 9월 17일



당회소식
위원회소식
부서소식
세례 간증문
은사공동체
교회 행사
새교우 환영반
화보

2017

SEPTEMBER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 (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Phone:(617) 739-2663, (617) 277.8097 Fax:(617) 739-1366
www.kcboston.org

권두언

이영길 목사

[고흐와 고갱의 만남]

저는 지난번 안식월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날은 파리 근교에 있는, 고흐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오베르쉬르우아즈를 방문한 날입니다. 그후 여가 시간에는 고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알게 된 것은 고흐가 고갱을 자기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기거하고 있는 하숙집에 초대합니다. 고갱이 도착하기 전에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림니다. 이 해바라기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두 독특한 화가들의 성격상 오래 못 지내고 크게 다툰후 고갱은 두 달 만에 고흐가 마련해 둔 집을 떠납니다.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다툼으로 마친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이 만남은 위대한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화가의 다툼 보다는 두 화가의 업적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봅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 기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9 월이 왔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대하십시다.

당회 소식

당회 서기 한승희 장로

1. 당회는 본교회 부부청년부의 담당교역자로 지난 7년 간 수고해오신 김건철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임서를, 그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임으로 김성천 목사님 (Brandeis University 대학원에서 구약학 전공 Ph.D. Candidate)을 8월 13일 자로 임명 하였습니다.
2. 당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공석 중 이었던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구현우 전도사님 (BU 신학 대학원 신학박사 학위 과정)을 9월 10일자로 임명하였습니다.

Editors:

김한나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3. 당회는 9 월 17 일 제직 임직주일 예배시에 2 명의 추천장로 (김한나, 방경남)와 6 명의 안수집사 후보들 (송경수, 장봉준, 주미옥, 최수경, 황우성, 황지현)에게 안수를 베푸는 것을 인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당회는 보스톤 노회 소속인 Greater Boston 지역의 케냐 이민자 개척 교회인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를 돕기위한 자선음악회를 (교육 2 부와 집사회가 주관) 10 월 28 일 저녁 7 시에 교회 본당에서 개최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당회는 이번 두 차례에 걸친 허리케인 (Hurricane Harvey & Irma)으로 인하여 생긴 Texas 와 Florida 의 수 많은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그 방안은 정.평.환.위원회에 일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 일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식

해외선교위원회

[먼 훗날에 나는...]

진정원 집사

스물 넷까지 친정 부모님과 살았었고, 25 년을 결혼해서 두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에게, 두아이가 떠난 빈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25 년을 맞이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지난 여름의 일주일은 귀한 시간이었다.

엄마는 먹는 음식이 까다롭고, 더위도 많이 타는데 AC 가 없을것 이라며 딸도, 아들도, 남편까지도 찬성하여 주지 않았던 나의 과테말라에서의 일주일...

“Are you going to join this year mission trip?”

“I am thinking”

“You have thought more than 10 years ~~~”

카르리나 장로님과 나눈 대화는 주님께서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매번 왜 생각만 하는거니? 이제는 할수 있어. 왜 망설이지?”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된 나는 과테 말라 현지에서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어디서 그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넉넉히 먹을 음식도 없었고,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방도 없었다.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있는 이쁘고 시원한 예배당도 없었다. 신발도 없는지 통통 부은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참 많이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 그곳 갈릴리 공동체는 5 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었고, 치과와 한방까지 할 수 있는 의료 센터를 설립해 주었고, 산꼭대기에 예쁜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선교팀은 아침 다섯시 반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작은 부락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가족께 일자리를 주어서 주인 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선교사님이 운영 하시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 또한 진행 시켜주고 계셨다.

학생들의 학비가 일년에 \$350, 이곳의 학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액수이지만 이를 면제 받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에 건축으로, 주방에서, 막노동으로, 냄새나는 돼지 사육으로, 굶은 일을 열심히 섬기시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나 같구나 싶었다.

주 중에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과 스태프가 함께 모인 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팀이 준비해 간 찬양 ‘El Corazon de mi padre - 아버지의 마음’ 노래를 부르면서, 한글 가사가 아니기에 의미도 잘 모르면서도 또 얼마나 감격에 울었던지~~~ .

바람 한 자락 들어 오지 않은 어두운 강당에서 영어를 스페니쉬로, 다시 게차라는 그곳의 현지어로의 통역을 통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진료하셨던 우리 노장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모습, 오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물을 따라서 입에 직접 회충약을 먹여 보내시던 집사님과 권사님의 모습, 몸이 너무 불편해서 진료장소로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땀별에 무거운 장비를 들고, 웃으시면서 왕진 다녀오시던 권사님, 장작이 가득 쌓여있는 허름한



창고 앞에서

이발을하여 주며 온 몸을 머리카락으로 장식하면서 내리는 빗방울에 땀을 씻어 내며 땀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웃던 이들, 모두가 피곤할 때마다 준비하여 온 박하, 땅콩, 눈깔 사탕을 나눠 주시면 기뻐하시는 집사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나에게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감사함에 복받혀 울고, 감격해서 웃으며 지내고 돌아온 나는 매일 기도 드린다.

나와 함께 동역하여 주셨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그 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두 아이와 우리 교회분들을 포함한 주위 분들에게 내가 2017 여름에 받은 사랑과 감격, 그리고 큰 은혜를 나누기에 합당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 드린다...

의료팀: 윤원길, 최연일, 최송자, 김경애, 이정민

교육: Carlina Vdlaquez, Andrew Sanchez, Samuel Sanchez

약국팀: 김애리, 윤만강

봉사: 진정원, 안성완

국내선교위원회 단기선교

위원장 이유택 장로
보고자 이혜원 집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 63:1)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는 지난 2017년 7월 29일(토)부터

8월 5일(토)까지
미국 남서부 지역의
위치한 미합중국
내의 아메리칸
원주민 나바호
부족의 독립 국가인
나바호의 나라



(Navajo Nation)에 단기선교팀을 파송 하였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좋은 것을 충만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헌금으로, 또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큰 힘을 주신 이영길 목사님, 윤경문 목사님과 모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록기도회와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파송예배때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선교팀의 마음을 모아주신 찬양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부터 권사님들까지 3 세대가 함께한 이번 단기선교팀은 모두 13 명입니다. 김중희 권사, 이경자 권사, 김동규 집사 (팀장 1), 최지상 목사, 조나현 자매, 정운원 형제, 김소정 자매, 이주비 자매, 이하운 자매, 이하은 자매, 정종인형제, 안현준형제와 이해원 집사(팀장 2)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중고등부에서 5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7 월 29 일 토요일 오전에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 도착하여 함께 점심을 먹고 두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앨버커키에서 차로 2 시간 30 분정도 거리의 라하라(La Jara)시에 위치한 숙소로 향하고 나머지 팀은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한 후에 숙소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나바호의 나라중에서도 뉴멕시코 주의 큐바/오호엔시노(Cuba/Ojo Encino) 지역에 위치한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10 여년 동안 나바호 교회와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시는 이덕재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Christian Vision Academy)의 연중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대비를 맞으며 여러 산길을 돌고 돌아 겨우 산타페산자락에 Santa Fe National Forest) 위치한 아름다운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선교사님과 허운아 전도사님, 또 김 권사님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기에 우리 단기선교팀은 원주민 보호구역내의 나바호 교회에서 나바호 언어와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근처 마을에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월요일 부터 있을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장마철이라 뉴멕시코의 사막이 푸른 초장과 같이 변하였고 길가에는 흰색, 분홍색, 노랑색, 오렌지색의 아름다운 들꽃들이 청초히 하늘하늘 바람에 춤을 추었습니다. 갑자기 우르릉 짹짹! 폭우가 내리기 전까지 . . . 원래 사막에 비가 내리면 흙길인 인디안 마을의 모든 길들은 찰흙으로 변하고



겉에서 보기엔 반지르르 윤기나는 평범한 비포장도로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 얼마나 큰 물구덩이가 숨어있는 지 알 수 없고 매끄러운 চাল흙을 입은 비포장도로는 마치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듯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미끄럽게 사르르르 빙그르르 8 인승 SUV 를 돌게합니다. 그안에 타고있는 선교팀원들의 간장이 서늘할 정도로 . . . 하는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했던 프로그램 홍보를 중단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도란 도란 사막의 생명수와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차안에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선교팀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선교프로그램은 오전중에는 나바호 부족의 양로원에서 간식을 준비해드리고 작은 공연(클래식 피아노와 바이올린, 무용, 노래)을 하거나 나바호 가정을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만 5 세부터 19 세의 나바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음악 캠프(God’s Creation Music Camp)라는 이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 시부터 오후 8 시 정도까지 (셔틀 서비스 포함)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 월에도 함께 음악캠프에서 나바호 스태프로 섬겨주신 현지교회의 코라 선생님께서 이번에도 함께하셔서 더욱 뜻깊고 반가웠습니다.

오후 3 시경에 김동규 집사님, 최지상 목사님과 정윤원 형제님이 8 인승 SUV 3 대로 매일 학생들을 근처 학교에서 pick up 하시고 여름성경학교가 끝나면 오후 7 시 30 분 쯤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30-35 명 정도의 나바호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인도: 이해원, 정윤원, 김소정, 안현준), 성경공부(인도: 최지상, 이해원, 정종인), 피아노와 작곡(인도: 조나현, 정윤원, 이하은, 안현준, 정종인), 미술공예(인도: 김소정, 이하은)와 무용(인도: 이주비, 이하은)을 배우고 김종희 권사님의 지휘아래 이경자 권사님과 김동규 집사님께서 맛있게 만들어주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분의 멋진 주방팀은 또 저희 선교팀원들의 점심식사도 건강식으로 매일 준비해주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이주비 자매님이 선교센터에서 키우는 어린 진돗개에 물린 것입니다. 유난히 예민한 개가 멀리 앉아있던 주비에게

다가와 발목을 물었습니다. 가뜰이나 예뻐해주고 싶어도 위험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선교센터 스태프들의 말씀때문에 멀리서 바라만 보던 사이였는데도 말이지요. 침착하게 “I'm fine. 정말 괜찮아요” 를 계속 외치던 주비는 결국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에도 우리 모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하운 자매가 담당할 무용수업을 모두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호구역내에 사는 나바호 가정을 방문할 때에 으르렁거리는 수많은 개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구들의 숫자보다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말, 소, 양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나바호 부족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더욱 위험하게 느껴져서 저희는 가정방문은 하루로 마치고 그 다음 날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원하여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의 라벤더 농장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흙이나 풀보다 돌이 더 많은 라벤더밭일을 오전시간에 하고 그날 오후 우리 팀원들, 특히 열심히 일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평상시 속도보다 두배 더 느리게 걷고 말하고, 자주 안아주던 나바호 어린이들도 못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선생님들과 나바호 학생들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운 찬양, 무용, 피아노 연주를 음악회 형식으로 학부형들과 여러 초대 손님들 앞에서 즐겁게 발표하였습니다. 음악회 특순으로 정운원 형제님이 아름다운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또 안현준 형제님이 멋진 바이올린 연주, 또 두분의 합주가 있었고 이를 보며 나바호 어린이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비디로로 녹음을 하며 떠드는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많이 행복해하셨습니다. 물론 발표후에는 함께 모여 주방팀과 선교센터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국내선교와 해외선교가 함께 훈련하고 선교를 준비하여 파송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선교팀이 모일 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부모님과 여러 교우님들께서 맛있고 풍부한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송예배 때에는 두팀이 함께 스페인어, 나바호어, 한국어와 영어로 “예수 사랑하심은”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동안 두 선교팀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참 예뻐해주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 한명은 이 분들을 통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3 세대가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our unfailing love is better than life itself;
How I praise you!” (Psalm 63:3. NLT)

예배예슬 위원회

[2017 년도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9월 17일 2부 예배시에 2017년도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제직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이되어 도와주고,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Cindy Kohlman 목사님은 신임 안수 제직들은 스스로의 정성과 지성, 창의력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섬기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신임 제직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장로: 김한나, 방경남

안수 집사: 송경수, 장봉준, 주미옥, 최수경, 황우성, 황지현

이로서 13명의 사무장로와, 7명의 휴무장로, 9명의 은퇴장로/ 34명의 권사/ 70명의 시무 안수집사, 29명의 휴무 안수집사/ 84명 서리 집사로 총 237명(시무 & 휴무)의 제직원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9 월 쉼마의 밤]



위원장 장양술 장로
보고자: 최학수 집사

9 월 쉼마의 밤은 “20-70 찬양의 밤” 으로 보냈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진 감미로운 목소리와 달콤한 악기들의 조합으로 멋진 9 월의 밤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쉼마의 밤의 목적은 찬양을 통해 그리고 그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대간의 교류 및 프로페셔널/퍼스널 커넥션을 만들고 이어감으로 인해 3 세대 교회의 활성화 유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예배예술 위원회, 그리고 교인위원회의 노력으로 청년부들과 장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진행, 그리고 공연하는 시간까지 아름다운 찬양의 울림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쉼마의 밤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3 세대가 함께 어울어질 수 찬양의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 1 부, 2 부, 그리고 부청을 각 구역들과 연계시킴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교제와 교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히 팀구성을 살펴보면:

1. 로고스팀 (간사: 정광근):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중서 4 (팀장: 최정열/노시일/홍도화), 청년 1 부 (방수영)
2. 벨엘팀 (간사: 정하균): 중앙 3,4,5, 중서 2,3 (팀장: 김동규/손우성/유승오), 청년 2 부 (강석우)
3. 갈릴리팀 (간사: 이지훈): 중앙 1,2, 중서 1 (팀장: 방경남/김경애), 부부청년부 (신정욱)

처음 시작은 로고스팀에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이어서 기타와 첼로로 어울어진 반주를 바탕으로 한웅재 목사님의 “청중” 이라는 곡을 하나님 음성을 조용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향기롭게 들으셨을까? 하는 감동이 물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벤엘팀이 청년 2 부와 중고등부의 막강 기악 파트를 서두로 “모짜르트의 자장가”를 감미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어서 “빈들의 마른풀 같이”를 유쓰, 청년 2 부, 그리고 구역원들이 다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갈릴리 팀은 성가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구역의 명성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을 멋진 화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년부에서부터 불러왔던 “Jesus Loves Me”를 어른들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나누어 전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쉼마의 밤에서는 3 세대가 같이하는 찬양의 밤을 통해 교회안에서 세대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제와 교류를 이룰 수 있었고, 또한 가을 밤을 은은하게 적신 멋진 하모니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여유롭게 즐길수 있도록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느라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배예술위원회에서 물질을, 그리고 특급 권사님들의 정성으로 맛있는 소고기 무우국을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쉼마의 밤 저녁을 위해 도네이션 하실 교우님들은 정광근 집사 (617-777-4213)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록기도회

회장 김형범 장로

7 월 마지막 주일인 30 일에는 2 부예배시 상록기도회 헌신예배로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영길 목사님께서 ‘노인의 지혜(예레미아 애가 3:19-29)’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헌금 찬양 순서에 많은 회원들(할머니와 할아버지)이 참여하여 열심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을 불러서 찬양이 끝나자 강단 뒤에 앉은 찬양대가 큰 박수를 치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감동의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지난 5 월 찬양제에서는 찬양드리는 자체로도 은혜스웠다는 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나아졌나 봅니다.

예배 후에는 7 월에 89 세가 되신 이상구 권사님의 자녀들 (김현구 집사/전희 집사,김영숙 권사 /박관희 집사, 김한나 권사/조준호 장로, 김혜숙 집사 부부)이 구순(九旬)잔치를 Tin Tin 식당에서 차렸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초대받아 그 잔치를 더욱 빛내면서 축하해 드렸습니다.

7 월말 단기선교단 파송을 위한 교회의 연속기도에 김현지 권사, 주정대 집사, 정능화 권사, 이정숙 권사, 공경희 권사, 이숙재 권사, 김형범 장로가 참여하였습니다.

8 월에는 27 일 주일에 101 호실에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윤경문 목사님께서 '신앙: 함께 하는 여정'(사도행전 16 장 25 절~34 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날 음식을 대접하여 준 부서는 상록기도회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권사회 (회장: 김정림 권사)입니다.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에 모두들 즐거웠습니다.

9 월에는 24 일 주일에 정기 총회로 모임 예정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우리가 매년 정기 총회를 다른 부서보다 먼저합니다. 정기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고 백린장로님 2 주기 추도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려는 자녀들의 효성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같은 날에 계획되어있는 신앙강좌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합니다.

권사회

회장 김정림 권사

권사회의 지난 여름은 교회 여러 부서와 함께하고 소통하는 계절 이었습니다.

미흡하지만 모든 회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활동했던 일들은, 첫째로 국내외선교회에서 지난 7 월 말에 다녀온 단기선교단에 김경애, 최송자, 윤만강 (과테말라), 김종희, 이경자 (뉴멕시코) 권사 회원님들이 동참하여 은혜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권사회에서는 해외 단기선교단을 위해 \$300 을 후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던 김한나 권사가 장립예배 이후 권사 부회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한 부회장 보궐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총무 겸 회계로 섬기시는 신미송 권사님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현재의 일도 함께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8 월 18~19 일 미국장로교 동북대회 여선교회 3년 정기모임에 김경애 권사가 참여했으며, 27 일에는 상록기도회를 위한 오찬을 준비하여 대접해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양로원에 계시는 박연교 권사님을 방문하여 오랜 옛 정을 나누었습니다. 연락없이 방문하여서인지 너무도 반기시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신은 맑으셔서 한명 한명 다 알아보시고, 가족들 안부 다 물어보시고, 교회의 여러분의 문안도 여쭙어 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이숙재 권사님의 밭에 들려 밭서리도 해 왔답니다. 농장이 무색할 정도의 다양한 야채와 풍성한 열매들이 한 마당 가득, 밤나무엔 밤들이 충충히 달려있고, 앞길에 가득 핀 코스모스가 한국의 가을 정취를 한 마음 가득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9 월 10 일에는 진급주일을 맞이하는 대학 청년부, youth group 의 회원을 위해 오찬을 함께 준비하며 접대했습니다.

그동안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던 김한나 권사님께서 9 월 17 일에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부서소식

집사회

회장 손영권 집사
홍보부장 정유미 집사

❀여름(6.7.8월)❀



1. 6 월 25 일(일), 상록회 야유회가 1 부 예배와 2 부 예배 사이에 Larz Anderson Park 에서 있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가 되시도록 집사회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 7 월 15 일(토), 단기 선교단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약포장을 도와드렸습니다.

3. 8 월 6 일(일), 청년 1,2 부의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소박한 한끼를 함께 하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8 월 27 일(일), 김동숙 집사님과 함께 Homeless shelter 에 가서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집사회에서 처음 참여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으로 삶이 풍성해졌다"는 김 집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을(9,10,11 월)♣

1. 9 월 3 일(일), 예정된 전교인 야유회가 날씨관계로 아쉽게도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유회를 위해 준비한 음식으로 집사회에서는 중고등부와 청년 1, 2 부 그리고 부부청년부에게 당일 점심을 제공하였습니다.

2. 10 월 21 일(토), 우리교회 가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지난 여름의 흔적을 지우고 교회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모두 모두 참여해 주세요.

3. 10 월 28 일(토), 본교회 예배당에서 케냐 개척교회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집사회와 청년 1, 2 부가 함께 준비하오니, 공연을 즐기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장로교 동북대회 여성모임에 다녀와서

(Presbyterian Women, Synod of Northeast Triennial Gathering)

김경애 권사

지난 8 월 18-19 일에 미국장로교 동북대회 여성모임에 다녀왔습니다. 3 년마다 모이는 이 모임은 올해 Albany, NY 에 있는 Desmond Hotel and Conference Center 에서 열렸으며 미주 동북부에 사는 장로교 여성들이 먼 길을 운전하여 또는 비행기를 타고와서 참석하였습니다.

미국장로교 여성위원회의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많지만 특히,

1. 기도와 성경공부, Newsletter 를 통하여 우리 여성들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2.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고
3. 전 세계의 선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제가 몇년전 이 모임에 참석했을 때, 병의 뚜껑도 못 열고, 문도 열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 손목에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첫날 저녁에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손목의 통증이 깨끗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Household of Faith(믿음의 가족)” 이었으며, 주제 성경말씀은 에베소서 2:17-21 로,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성모임에 참석한 여성 중에는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오신 분들과 한국, 타이완, 케냐, 캐리비안 섬에서 이민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여러 훌륭한 여성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가 있었고, 또 여러 여성 분들이 작사, 작곡한 새로운 찬송을 많이 배웠습니다.

Workshop leader 중의 Jenny Lee (이정인) 장로님은 한국인 1.5 세이고 최근에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 이방인, 이민자, 외국인, 피난민, 시민” 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는데, 옆에 앉아 강의를 같이 듣는 키크고 까만 얼굴의 여인들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1) 창세기 11 장-12 장에 기록된 아브람은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갔고, 또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멀고 먼 이집트로 피난갔으며

2) 나오미의 식구들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자 모압 땅으로 가서 10 년을 살았으며

3)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만삭의 몸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낳은지 얼마 안되어 헤롯왕이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갓난 아기를 데리고 먼 이집트로 피난을 간 피난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저도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먼 태평양을 넘어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UN 발표에 의하면, 현재 이 세상에는 약 65.6 Million이라는 사람들이 강제로, 또는 다른 이유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딴 나라에 가서 살고있고, 22.5 Million의 사람들이 피난민 (Refugee)이고, 10 Million의 사람들이 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 장에 “이방인(Alien)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낳은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고 하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 장에서 말씀하시길, -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자들” 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2-3 주간 미국 남부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고, 헐벗고, 먹을 음식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엔 이민자들도, 이방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뛰어나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기력한 존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장로교 여성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민자, 이방인, 피난민, 외국인들로 문화적 배경은 다르나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회장 지훈 집사

지난 6 월 25 일 (주일)에 보스톤 Homeless Shelter 에서 가졌던 급식 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2017 년도 전반기 남선교회 활동을 마치고, 이후 7,8 월 여름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전반기 남선교회의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첫 행사로 9월 9일(토)에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Braintree Municipal GC 에서 성황리에 거행하였습니다. 23 명의 남선교회원들이 함께 열린 경기와 즐거운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골프대회 우승자로는 이경환 집사와 홍성일 집사가 공동으로 우승하였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남선교회가 후원하는 장학사업에 3,300 불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Hole sponsor 가 되어 주신 주신 한승희, 김영범, 엄재관 장로님, 최정열, 지훈 집사님 들과 또 특별 찬조금으로 지원해 주신 권복태, 최연일, 김문소, 조준호, 김세철, 이정규, 이정민, 이문영, 한문수, 안성완, 방경남, 김옥식 장로님들과 박준재, 이경환, 김진기, 손우성, 홍성일, 김준구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남선교회가 올해의 표어처럼 ‘주님의 기쁨’ 이 되도록, 회원님들의 더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례간증문

[이재혁 교우]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학위 파견으로 연수를 오게된 것도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그저 그 분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40년 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저나 와이프 모두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 교회라는 곳엔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일부 크리스천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접하며 기독교에 대해 편협하고 부정적인 시각에만 사로잡혀서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수많은 기회를 주시며 주님의 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많은 저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번 거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결국 하나님은 이 곳 보스턴까지 오게 하시고, 이 곳에서 천사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따라서 생전 처음으로 찾아본 교회가 바로 이 곳 보스턴한인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저희에게 주변의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교제하게 하였고, 훌륭한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비롯해 구역모임, 성경공부반, 쉼마의 밤 등 크고 작은 여러 모임과 행사들은 저희에게는 모두 놀랍고도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으로 와닿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참 보기 좋았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교우들의 마음가짐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오직 세상에 나만 있는 듯 잘난척하며 온갖 거만과 독단과 위선 속에 살았던 그동안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정말로 정말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런 타락한 삶, 거짓된 삶,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성경에 있으니 우선 신약부터 읽어 보라는 어떤 분의 권유에 따라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알고 성경을 읽기 전까지, 기독교 역시 그저 자기 잘 되게 해달라, 복 많이 달라고 비는 여러 기복 신앙의 하나이겠거니 생각했던 저의 무지함이 처참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낱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터 온다는 이신칭의는 무엇보다

저에게 큰 매력으로 와 닿았습니다. 성경을 하나 하나 읽어 가며, 인터넷을 통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저는 학위 과정 공부보다 더 매력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어린 아이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분 앞에서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꿇고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 장을 읽으며 알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조깅을 하다가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들으며, 내 작은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가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아 영영 소리내며 울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쓰레기보다 더러운 삶을 살았던 나를 대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건지 생각하며, 그냥 평평 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너무나도 여리고 작은 한 살짜리 어린 아이의 믿음이기에 보잘 것 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 교회로 부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하나, 늘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다시 예전의 삶 속으로 내쳐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스턴한인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 섬기며 이 곳의 너무나도 좋은 식구들과 섬없이 교체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늘 건강하고 바른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여린 믿음을 지키며 매일 매일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딸 루미와 루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순간이 기적같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죄인의 뜻이 아닌 주님의 크신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죄 많은 저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벅찬 기회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로마서 6 장의 이 구절이 계속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1-23)

[이지나 교우]

저는 지난 41 년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번도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하며 살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될것이라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순간이 오게 될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전 5월, 처음 보스턴 한인 교회에 나왔을 때 까지도 이끌어준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딱 세번만 나오고 “미안하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하고 안 나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첫 예배 때 생각이 납니다. 긴장하고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던 저였는데, 예배 시작 전 찬양팀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던 기억, 성가대 노래 들으며 너무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 그 중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예배 드리는 중 스테인글라스의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어머! 내가 왜이래? 뭐하는거야? 울면 안돼. 멈춰” 하며 스스로 컨트롤 하려 노력했던 일입니다.

주말이면 늘 놀러다니기 바빴던 저희 가족이, 세번만 가고 끝내야지 했던 교회 가는 일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있고 심지어 세례교육을 받고 이제 문답을 남기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엔 이 모든것이 저희 가족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저희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교인분들의 공 인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리고 운전하며 따라 부르다 갑자기 몸에 어떤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며 숨이 벽차오르며 왈각 눈물이 났던 찬양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목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맘 내려놓고 주
바라 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볼드소서 내뜻과 내생각 내려놓고



주님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모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지만 굵게 표시해 놓은 부분의 가사를 따라 부를때
흐느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1 년동안 주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고, 1 년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틈만나면 유혹에 빠지는 저를 기다려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직 성경도 다 읽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이제 딱 한살
아기 수준이지만 주님 품안에서 주님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고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루카스 다카시 지원 구 (Lucas Takashi Jiwon Koo):구용한 집사, 구 마리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우리 지원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선택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 참 사랑의 의미와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으신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며 감동 받으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려 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지원이를
지금 이순간 부터 마지막 순간 까지 하나님의
아들되고 또 아들로써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며 엄숙하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해바라기 주일학교

담당교역자 김수영 목사

유난히 떠나는 이들이 많았던 여름이 가고, 보스톤의 가장 분주한 계절,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해바라기 주일학교에서도 지난 여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졸업 예배 (9 월 3 일)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일이 마냥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주일학교에서 진급할 학년이 없어서 졸업을 하게 되는 5 학년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올해에도, 마음 따뜻하고, 지혜롭고, 신앙심 깊은 5 학년 학생들이 해바라기 주일학교의 신앙 교육을 마무리 하고, 중고등부로 자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로, 또한 각 가정의 보물들이자, 이민 사회의 리더들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기원합니다!

(5 학년 졸업자: 김경건, 김이연, 김정연, 김준, 나유민, 문지호, 박시형, 부준형, 이운찬, 임다영, 최재민)

2017-18 주일학교 반별 선생님들! 지난 9 월 10 일 진급주일부터 어린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며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ECC 채플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 왔으며, 더욱 의젓하고 씩씩해졌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렇게 멋진 어린이들을 섬기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린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하신 귀한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Toddler 반에 박미정, 박해인 선생님, Nursery 1 에 이유진, 황지현 선생님, Nursery 2 에 정윤숙, 최안나 선생님, Kindergarten 에 박선희, 김정현 선생님, 1 학년에 정은아 선생님, 2 학년에 김지은 선생님, 3 학년에 김하얀 선생님, 4 학년에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5 학년에 오장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오랫동안 찬양과 울동을 맡아주시는 신보경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의 박초롱 선생님, 드럼의 홍지형 선생님은 서로 눈빛만 보아도 음악이 척척 맞는 드림팀 찬양단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모든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도하시는 진정원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부장 집사님으로, 김세철 장로님께서 담당 장로님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주셨던 Caroline Kim, 한상현, 방수영 선생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년 간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살펴보며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였는데, 이번 2017-18 학년도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교육과정을 시작 했습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우리 주님의 인도 하심으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진 설명:

1. 졸업하는 5 학년 어린이들, 2. 흡사 겹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Elvin 어린이 3. 유년부 과정을 마치고 1 학년에 올라가는 Kindergarten 어린이들)

부부청년부

회장 신정옥/최윤희 교우

보스턴의 찬란한 여름이 어느덧 끝자락입니다. 먼저 많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부부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생활과 육아에 지친 부부청년부 가족들에게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묵상"이라는 주제로 실제 생활 속에서의 말씀 적용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두 가정의(독고 훈/이근희 가정:독고슬하, 송신오/권오연 가정:송해준) 출산과 두 가정의 송별회 (박송영/김소연가정, 신종근/홍별님가정)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주일에는 부청 야외예배가 Auburndale Park 에서 열렸고, 박준희/이은혜 가정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주일에는 창세기 2 장 24 절 말씀을 가지고 "Christian Home"을 주제로, 부부청년부를 7년간 섬겨주신 김건철 목사님께서 감동과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속에 8월 둘째 주 부터 김성천 목사(이지선 사모, 김은권 자녀)님께서 부부청년부에 새로 오셔서 매주 부청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8월 7일 주일에는 베이비 샤워가 있었고, (이원기/이혜영가정, 전재완/유진선가정) 그 중 이원기/이혜영가정은 9월 8일에 쌍둥이 자매(세린,루나)를 출산하였습니다. 올 한해 생명의 축복이 쏟아진 부부청년부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순산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김성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신 가운데, 형제/자매 기도모임이 진행되었고, 둘째 주에는 두 가정의 (독고훈/이근희 가정, 원유건/양지연 가정) 송별회를 가졌고, 9월 셋째 주에는 부청에 오신 새로운 두 가정의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올 한해 특히 임신과 출산, 송별의 시간이 잦은 저희 부부청년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담당 교역자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청년 2부에서는 7 월부터 새임원진(회장: 강석우, 부회장: 김하얀, 총무: 유보라)이 한 회기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8/19 일에는 임원단/리더진 Workshop 을 가지고 이번 회기의 표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표어- “Together, 주께 더: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본문: 전도서 4:9-12, 마태복음 18:20)

여름 행사로는 8 월 25 일(토)- Activity 로 Gloucester 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9/16 일에는 찬양단 Workshop 을 가졌습니다.

9 월에는 3 세대가 함께 하는 웨마의 밤에 참여하여 20/70 이 하나되는 기쁨과 주안에서 세대간의 교제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질 행사로는 9 월 24 일 새교우 환영겸 Activity 로 Apple Picking (Honey Pot Hill Orchards Stow, MA)을 가고, 9 월 29 일 금요일에는 한국에서 Young Adult Volunteer(YAV)로 활동하시는 Kurt/Hyeyoung 선교사님을 Guest speaker 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0 월 28 일 열릴 케냐교회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위하여 청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며,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성경공부 시간에는 여름기간 사도행전을 끝내고, 가을학기 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리더로는 배유미, 홍성환 교우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1부

담당 교역자 이요한 목사

청년 1 부의 2017 년 주제성구는 히브리서 11 장 1-6 절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청년들” 이 표어입니다. 새로운 가을학기를 맞아, 9, 10 월 동안에는 “주님이 보내신다” 라는 주제로, [요나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매주일 있을 소그룹 성경공부(동산모임) 시간에는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로 성경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임명된 동산지기는 윤도현, 장인석, 지택진입니다.

9/23 토요일 쉼마의 밤에는, 교회의 어른/선배님들(북동, 북서, 남동, 남서, 중서 4 구역)과 함께 로고스팀을 구성해서 특별순서를 선보였습니다. 9/29 금요일에 청년 1,2 부 연합예배를 계획하고 있고, 10/28(토)에는 보스톤노회에 속한 케냐이민교회를 돕는 자선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1,2 부, 집사회 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섬기게 됩니다.

11/3(금)-5(주일)에는 NH 필그림 파인 수련회장(전교인수련회 장소)에서 가을수련회를 갖습니다. 강사로는 상향한인연합장로교회(PCUSA) 청년부 담당목사와 GTU Ph.D 과정 중에 있는 조성래 목사를 초빙하였습니다.



부부청년부 & 중고등부 새 교역자 소개:



부부청부 담당 새 교역자:

부부청부 담당 새 교역자: 부부청년부를 섬기시게 된 김성천 목사님은현재 브랜다이즈 대학교에서 고대 근동 및 유대학과에서 Ph.D candidate 로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이지선 사모님(Mass. Eye & Ear, Post Doc.) 과 6 개월된 아들 은권(Nathan)을 두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Youth Group) 담당

새 교역자: Youth Group 을 섬기길 구현우 전도사님은 현재 BU 신학 대학원 신학박사 학위 과정에서 수학하시며, 가족으로는 한수지 전도사님(BU, M. Div 과정)과 아들 제현(Theo)이 있습니다.



시내산 동우회

회장: 김정선 장로

시내산 동우회에서는 7 월 4 일에 Mt.Sunapee, NH, 8 월 19 일에 Mt. Morgan & Mt. Percival, NH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Labor Day인 9월 4일에는 동우회 회원 9분이 아름다운 형제봉 Welch Mt & Dickey Mt, NH 를 다녀왔습니다. 이 산은 산 전체가 거대한 마당바위들로 이루어져있고, 비에 젖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두 산봉우리는 시야가 동서남북 사방이

열려 있어, White Mountain 산줄기들이 끝없는 파도같이 몰려오는 듯 합니다. 아직 단풍철은 아니지만 벌써 아주 열은 분홍색이 푸른 숲 계곡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6시간 정도 4.4 마일의 산행을 여유있게 가졌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시내산 동우회 회원들은 격식에 매인 호칭 대신에 쉽게 부를 수 있는 산 이름(산수 & 산수유, 동산 & 한산, 만산, 봉우리, 약산, 청산, 시내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내산 동우회는 9월 23일에는 Pack Monadnock Mt.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행사

교육 3 부 주최 신앙 강좌 (9 월 24 일(주일), 오전 10:20 분):

교육 3 부 주최 신앙강좌가 9 월 24 일 오전 10:20 분에 Community Center 에서 열립니다. 이번 신앙강좌는 “신이 많아서 신이 없는 시대, 우리의 신앙은?: 사사기,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란 주제로 김수영 목사님이 강의하십니다.

케냐 이민자 교회를 위한 자선 음악회 (10 월 28 일 (토), 오후 7 시)

보스톤 노회에 속한 케냐 이민자교회인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우리 교회 청년들과 집사회가 협력하여 10 월 28 일(토) 오후 7 시에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선 음악회는 이민자 교회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스톤

노회의 한 케냐 이민자 교회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돕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민온 케냐분의 교회를 돕게 될 이 음악회는 우리 교회의 음악인들과 중고등부의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될 예정이며, 홍보와 티켓 준비는 청년 1부, 2부, 그리고 집사회의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심을 느끼며, 청년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온 교우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도 누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귀한 선교적인 일을 위해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준비위원회의 chair 는 집사회 회장이신 손영권 집사님이, 음악 프로그램을 위해선 배유미 교우가, 티켓준비를 위해서 강석우 교우, 이동화 집사님이, 그리고, 홍보를 위해선 방수영, 이재익 집사님이 subcommittee chair 를 맡기로 하고, 청년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우님들 모두가 기도하며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음악회 티켓은 10 월부터 Booth 를 만들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성원을 바랍니다.

.....

10 월 교회 행사:

10/1(일) - 세계 성찬 주일/정의 평화 환경 주일

10/21(토) - 집사회 주최 교회 대청소

10/28(토) - 케냐 이민자 교회를 위한 자선 음악회

10/29(일) - 창립 기념 탁구대회



Rev. Dr. Lawrence P.K. Mbagara

새교우 환영반

교인위원회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2017년 8월 6일~ 20일, 3주에 걸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 및 신앙 간증 시간,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 교육을 마친 후, 김영범, 고경아 장로님 덕에서 8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들을 초대하여 환영 만찬 베풀어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새 가족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8 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임해택/임해경, 이석원, 하원경, 윤헌자, 조제국/조명희, 박현아 교수님입니다.

2017년 8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소개

임해택/임해경: 임해택 교수님께서서는 한국에서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2001년 부터 자녀교육을 위해 먼저 플로리다에 와 있던 가족을 따라 2004년에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임해경 교수님께서서는 어린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임해택 교수님께서서는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해택/임해경 교수님께서서는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따님 때문에 보스턴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석원 교수님께서서는 보스턴에 온지 두 달 정도 되셨고, 직장에서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동생과 고모님들도 전도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원 사업을 하셨고, 올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딸 (이지우)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보스턴에서 유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경 교수님께서서는 경기도 수원에서 자라셨고 11살 때 부모님을 따라 Las Vegas 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보스턴에 오신지는 4년 정도 되셨고 현재 Boston College 에서 사서로 일하고 계십니다.



윤현자 교우님께서서는 불교집안에서 태어나셨으나 9 살 때 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인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9 년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오셔서 지난 18 년간 보스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제국/조명희: 조제국 장로님께서서는 1978 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씨애틀에서 아내 조명희 교우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명희 교우님께서서는 가족 초청으로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셨고, 결혼 후 씨애틀에서 35 년 정도 생활하셨습니다. 보스톤에는 딸과 손주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박현아 교우님께서서는 어린시절을 포항에서 보냈고 예중/예고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에서 거주할 때 선생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했고, 보스톤에 가족과 함께 온지는 5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보스톤 한인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교인위원회의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통해 보스톤 한인 교회에서 신앙 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17 VISION CONFERENCE

리더를 열어나가는 평신도 사역

격동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신명기 32:7)

김은주 목사, 김현준 목사, 장윤기 목사
조문길 목사, 지선묵 목사, 한태진 목사

LOUISVILLE, KY
케터키 루이빌

2017년 9월 28일(목) - 30일(토)
장소: 총회 본부 (Presbyterian Center)
등록: nkpm.org 등록문의: 임재용 준비위원장 (407-670-4552)

주최: 미국장로교 한인총회 남산교회 전국 연합회



집사회-Homeless Shelter 사역



For more information
www.kcboston.org